

고 했다. ABB사의 관계자들과 앞으로의 신규 플랜트에서는 종래의 주 습분분리기의 기능도 겸할 수 있도록 동사의 1차 분리기와 고속분리기를 개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폴란드의 Zarnowiec 플랜트 PWR는 이미 이 새 방법을 적용하도록 주문했으며 이외에 ABB사는 스위스 국외의 전력회사들과 신규 플랜트를 위한 이러한 설비의 판매 상담을 벌이고 있다.

日本

資源에너지廳 原子力PA對策을 推進

日本 通産省·資源에너지廳은 原子力發電의 PA(Public Acceptance)對策에 관한 프로젝트 팀을 조속히 廳內에 설치할 방침이다.

이 팀은 구체적인 PA對策, 홍보활동의 立案·實施에 관한, 즉 PA의 “실제활동부서”라고 할 수 있으며, 廳內의 관계 각과에서 담당자를 선발하여 조직된다. 同廳에서는 지난 5월에 에너지廳長官을 本部長으로 하는 原子力弘報推進本部를 설치하여 지금까지 通産省에서 실시해 온 原子力弘報活動에 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다. 그러나 同本部는 廳內의 연락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떠나 앞으로 구체적인 PA對策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이 될 그룹의 필요성을 느껴 “프로젝트팀”을 조직하게 되었다.

현재는 구체적인 구성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머지않아 관계 각과에서 人員을 선발하여 활동을 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팀에서는 PA의 활동방안을 검토함과 동시에 內外의 정보수집을 통해서 구체적인 PA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견된다.

日本에서는 체르노빌事故를 배경으로 2월에 四國電力의 伊方原電 2號機의 出力調整運轉을 계기로 反核운동이 활발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

는데, 종래의 반대운동과는 달리 도시의 주부층에서도 가세를 하는 것이 최근 반대운동의 특징이다.

이에 대비하여 통산성, 과학기술청, 전기사업자들도 홍보활동을 위한 조직체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PA對策을 추진하고 있는데, 通産省에서는 PA대책에 관하여 一般國民을 대상으로

○ 原子力發電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는 홍보를 할 것,

○ 安全性을 알기 쉽게 설명할 것 등을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있다.

全世界的 規模로 原電情報 交換

「原子力發電事業者國際會議(WANO) 東京지부」의 설립이 결정되었다. 동 회의는 전세계 전기사업자가 협력하여 정보교환을 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향상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작년 10월에 설치되었으며, 東京지부는 아시아지역에서의 중핵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동 지부에는 일본, 중국, 인도, 한국, 파키스탄, 대만의 사업자가 참가하여 내년 봄에 設立總會를 개최하기로 했다.

WANO는 英國中央電力廳(CEGB)의 마살총재가 전세계의 원자력발전 사업자에게 호소하여 작년 10월 파리에서 제1회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기사업자 상호의 협력에 의해 세계적 규모에서 원자력발전에 관한 정보교환을 하는 체제의 본질이 협의되었으며 미국, 구주, 동구, 아시아의 4개 지역에 각각 지부를 설치하기로 합의되었다.

이 합의를 토대로 일본 전력업계에서는 전기사업연합회내에 WANO대응 워킹그룹을 설치하여 아시아지역의 지부설립 준비에 착수, 동 지역에서 원자력발전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인도, 한국, 파키스탄, 대만에 계속 호소할

결과, 내년 봄을 목표로 「東京지부」를 설립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동 지부에는 일본에서 10개 전력회사와 電中研이 참가하고, 이밖에 아시아지역에서 中國원자력공업성, 인도원자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파키스탄원자력위원회, 대만전력공사가 참가한다. 사업내용은 ① 원자력발전의 운전상황, 사고·고장 등의 정보교환, ②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상황, 운전상황, 사고, 고장에 관한 정보교환회의 개최 등으로 되어 있다.

WANO는 세계 30개국 약 130개 사업자로 구성된다. 아시아지역의 「東京지부」외에 미대륙에 「애틀랜타지부」(미국과 캐나다의 전력회사가 참가), 서구지역에는 「파리지부」(CEGB, 프랑스전력공사 등이 참가), 동구지역에는 「모스크바지부」(소련원자력발전성, 동독 등 참가)의 설립이 예정되어 있으며, 완성되면 세계규모의 네트워크가 실현되게 된다.

日本原産 新任會長에 圓城寺 次郎氏



日本原子力産業會議는 6월21일 第37回 定期總會를 開催하고 新任會長에 圓城寺 次郎 會長職務代行(日本經濟新聞新社 顧問)을 選任하였다.

또한 副會長中 小林 自澤, 村田, 山下, 渡邊 氏は 유임되었으며, 綿森 力氏(日本製作所 顧問)가 새로 選任되었다.

圓城寺 新任會長의 略歷은 다음과 같다.

〈略 曆〉

- 1907年 4月3日生(東京都)
- 1919年 早稻田大學 政治經濟學部卒
- 1919年 中外商業新報社(現 (株)日本經濟

新聞社)入社

- 1968年 同社 社長
- 1976年 同社 會長
- 1980年~同社 顧問
- 1988年 3月 日本原子力産業會議 會長代行
- 其他 주요직책 : 石油審議會 會長, 中央社會保險醫療協議會 會長, 産業構造審議會 委員, 綜合에너지調査會 臨時委員

소 련

Legasov氏의 自殺은 蘇産業界에 대한 無言의 怨望

체르노빌 사고 2주년째 되는 지난 4월 27일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원자력 학자 Legasov씨는 소련 원자력산업의 안전성, 품질 및 책임 등의 심각한 문제로 절망속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5월 20일자 푸라우다지에 실린 그의 「비망록」이 밝혔다. 레가소프씨는 체르노빌 사고후 사후복구팀의 팀장으로 있었다.

레가소프씨 자살에 관한 발표는 키에프시에서 한 국제의학회의가 열리고 있을 때에 때마침 이루어졌는데 이번 발표로 그가 체르노빌에서 받은 피폭선량이 원인이 되어 백혈병으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불식되었다. 소련 TV방송이 4월 29일 그의 사망을 발표했을 때도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레가소프씨는 당년 51세로 유명한 소련 과학아카데미에 역사상 최연소 회원으로 선출됐었다.

레가소프씨는 그의 비망록에서 그가 다년간 소련 원자력 플랜트의 결함에 대해 당국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켰으나 그들로 부터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저항만을 받았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체르노빌 사고가 수십년간에 걸친 소